



# 2010년 9월 총선을 앞둔 스웨덴 여당연합과 야당연합의 경제 및 노동정책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④ - 스웨덴

손혜경 (스웨덴 옉살라대학교 유라시아학과 연구원)

## ■ 머리말

스웨덴은 지난 2006년 9월 17일에 열린 총선에서 사회민주당이 130석, 보수당이 97석, 중앙당이 29석, 인민민주당이 28석, 기독교민주당이 24석, 좌익당이 22석, 환경녹색당 19석 등의 의석 분포를 기록하였다. 중도우파 연합(Allians för Sverige, 간략하게 Alliansen이라고 칭하며 여기에는 보수당, 중앙당, 인민민주당 및 기독교민주당이 참여하고 있음)의 총 의석 수가 178석으로 사회민주당과 그의 전통적인 연정 파트너인 좌익당과 환경녹색당의 총 의석 수인 171석보다 7석이 많은 결과 결국 12년 만에 좌파에서 우파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sup>1)</sup>.

중도우파연합은 정권 교체를 이룬 이후 그들 정책의 중요한 기초로 전 국민 임금노동 실시, 공공재정의 균형을 이룩하였다. 또한 시장경제 및 자유주의의 원칙으로 사회·경제 제도를 개선하려는 정책을 펼쳐 왔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기업친화적 정책으로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최대화하며 기업의 투자를 자극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추구해 왔다. 또한 사회복지 제도의 근간을 보존하며 대신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정책을 도입해 왔다.

2010년 9월 총선을 앞두고 중도우파연합(Alliansen)과 대결하는 입장에서 사회당과 좌익당 그리고

1) Riksdagen, homepage, 2009-05-31. "Valresultat - röstetal och andelar vid riksdagsvalet 2006", [http://www.riksdagen.se/templates/R\\_PageFull\\_\\_\\_11180.aspx](http://www.riksdagen.se/templates/R_PageFull___11180.aspx)

환경녹색당은 2009년 10월에 정권 교체를 목표로 협상을 시작하여 마침내 12월에 좌파연합(De rödgröna 또는 적녹연합)을 결성하였다. 좌파연합은 지난 2006년 선거 이후 중도우파연합이 펼친 각종 정책을 ‘반노동 정책(antiarbetarpolitik)’이라고 계속 비난해 왔다. 좌파연합은 이번 2010년 9월 총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룬 후 연합정부를 구성하여 중도우파 연정과 달리 ‘노동친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계속 표명하고 있다<sup>2)</sup>.

이 글은 이러한 스웨덴의 현재 정치적 상황을 배경으로 첫째, 스웨덴의 현재 경제 및 노동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둘째, 중도우파연합 정부가 2006년 9월 정권 교체 이후 도입한 각종 사회·경제 정책과 셋째, 중도우파연합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세운 봄 예산의 내용을 점검하고, 넷째, 최근 좌파연합이 중도우파연합 정부의 정책에 대결하려는 입장으로 제시한 2010년 및 2011년 대체 예산안의 내용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금년 선거 결과를 예측해 본다.

## ■ 경제 및 노동시장 현황

2000년 이후 스웨덴의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을 기록하였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스웨덴의 경제는 평균 3.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스웨덴 경제는 수출 시장의 악화로 2008년 하반기와 2009년 초에 들어가면서 급격히 악화되어 2009년 줄곧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하지만 2010년 들어 세계경제가 회복되면서 스웨덴의 경제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1/4분기의 국민총생산은 2009년 1/4분기에 비해 3%가 상승하였으며 국민총생산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전망이다. 스웨덴 경제의 회복에 따라 한동안 침체를 겪었던 노동시장도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상반기 동안 고용률도 계속 증가하였으며 각종 지표도 앞으로 고용률이 계속 상승할 것임을 예견한다. 사실 스웨덴 경제 및 노동시장의 회복 이면에는 중도연합 정부가 펼친 확대경제 정책과 세계시장에서 스웨덴 수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2010년도와 2006년 집권 시와 비교할 때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전체적으로

2) 좌파연합 홈페이지, [www.rodgron.se](http://www.rodgron.se)

약 380억 크로나만큼 증가하였으며 2008년과 2009년 경제위기 기간 동안만에도 약 170억 크로나를 추가로 지원하였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기업이나 가계들도 그동안 저축 일변도에서 서서히 투자 및 소비를 증가하고 있다. 가계의 2010년 1/4분기 소비율은 2009년 1/4분기 소비율에 비해 3%가 높은 수치이며 같은 기간 동안 스웨덴의 수출은 약 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전체적으로 볼 때 수출은 7% 증가할 전망이고, 스웨덴 정부 또한 2011년과 2012년에도 이렇게 높은 수출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sup>3)</sup>.

## ■ 중도우파연합 정부가 도입한 주요 사회·경제 정책

아래 <표 1>은 중도우파연합 정부가 2006년 9월에 정권 교체를 이룬 후 도입한 주요 사회·경제 정책을 요약해서 보여준다.

<표 1> 중도우파연합 정부가 실시한 사회·경제 정책

일 자	내 용	정책기대효과
2007.1.1	부유세 폐지	- 개인의 근로의욕 증진 - 기업의 일자리 창출 의욕 개선 - 기업의 스웨덴 국내 내 사업 확대 및 창업
2007.1.1	임금소득과 사업자소득에 대한 1차 세금 감면 실시 (jobbskatteavdraget) <sup>1)</sup>	실업자, 병가로 인한 휴가자 등 노동시장 외부에 존재하는 인구의 노동시장에 대한 유인력 증대로 궁극적으로 고용률 증대
2007.1.	청년 장기실업자(6개월 이상) 및 최근 영주허가 받은 이민자 고용 시 사업주 비용 면제(Nystartjobb)	청소년 고용률 증대

3) Konjunkturinstitutet, 2010-06-23. <http://www.konj.se/arkiv/konjunkturlaget/konjunkturlaget/tydligaterhamtningskuggasavorosmoln.5.3eea013f128a65019c2800023588.html> "konjunkturläget"

〈표 1〉의 계속

일자	내용	정책기대효과
2007.7.1	각종 가사에 관련한 서비스업 (청소, 정원관리, 유아도우미, 노인도우미)에 대한 감세 조치, 감세는 전체 인건비의 50%, 최저 금액 연 1,000코로나, 최고 금액 연 50,000코로나, 단 2007년은 25,000코로나	청소년 및 이민자 대상 일자리 창출
2007.7.1	청년실업자 고용 시 사업주 복지부담금 32.42%에서 21.31%로 감소	청소년 대상 일자리 창출
2007.7.2	<p>실업보험 제도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체율을 실업급여 수령기간 200일 이후에는 70%로 감소</li> <li>- 실업 300일 후 실업급여 기간 연장가능성 폐지, 우선 일정 기간 노동을 한 후 새롭게 실업급여 신청 가능</li> <li>- 실업보험료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폐지</li> <li>- 실업자가 18세 미만의 양육할 아동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기간을 150일 간 연장 가능</li> <li>- 추가로 받는 150일간 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은 70%, 전체 실업급여 기간 최대 450일로 확정</li> <li>- 노동활동보장제도 (공공직업알선소 등록 후 27개월 이후에 시작하는 노동시장프로그램) 대신 노동 및 개발보장제도 (공공직업알선소 후 바로 시작) 도입</li> <li>- 구직 시작 후 최초 100일간 직업 및 지역을 제한해 구직할 수 있는 가능성 축소</li> </ul>	실업보험 제도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개선하고 실업자들을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노동시장으로 재복귀시킬 목적
2008.1.1	임금소득과 사업자소득에 대한 2차 세금감면 실시 (jobbskatteavdraget)	
2008.2.5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부모휴가를 부부 사이에 동등하게 나누었을 경우 하루에 100코로나의 지원금 (jästärhetsbonus) 추가 지급	가족생활과 직업생활에 있어서의 양성평등 향상
2008.7.1	지방자치 정부가 부모 중 한 명이 아동을 보육원에 보내는 대신 집에서 아동을 돌볼 경우 아이가 3살까지 월 3,000코로나를 양육급여로 부모에게 지급할 의무	부모들의 아동 보육에 대한 선택자유권 확대
2008.12.8	주택 및 아파트 소유자가 주거지 유지, 보선, 확장, 증축 공사를 할 경우 전체 인건비의 50%, 연간 10만 코로나까지 세금 감면 혜택 <sup>2)</sup>	건설경기 진작, 건설노동자들의 실업 감소
2009.1.1	청년실업자 고용시 사업주 복지부담금 절반으로 감소	청소년 대상 일자리창출
2009.1.1	질병 시 받는 현금보상금 수급기간 중에도 능력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 도입, 2008년 7월 1일 이후에 도입된 제도에 해당하는 자로 학생 및 자원봉사자 등 포함 전체 약 43만 명에 해당.	질병시 받는 현금보상 수급자일지라도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 자신의 노동 능력을 점검하고 궁극적으로 현금보상 수급자에서 정상 임금생활자로 복귀하도록 독려

〈표 1〉의 계속

일자	내용	정책기대효과
2009.1.1	임금소득과 사업자소득에 대한 3차 세금감면 실시 (jobbskatteavdraget)	
2009.1.1	약국 민영화	소비자의 약품 구입 및 선택자유 확대
2010.1.1	임금소득과 사업자소득에 대한 4차 세금감면 실시 (jobbskatteavdraget)	

주 : 1) Skatteverket, 2010-08-08, www.skatteverket.se “Skattereduktion för arbetsinkomster – s.k. jobbskatteavdrag.”  
 2) Skatteverket, 2010-08-08, www.skatteverket.se “ROT-avdraget – så fungerar det.”

중도우파 보수연정이 도입한 각종 사회복지 정책 변경 사항 중 가장 논란이 큰 부문은 실업보험 제도 변경 병가 휴가자에 대한 현금보상금 제도이다. 현재 경기 불황으로 스웨덴의 실업률이 계속 높은 수준을 보이는 상황에서 예전보다 엄격한 실업보험 제도는 실업자들의 생활수준 유지에 큰 문제점을 초래했고 병가 휴가자들에 대한 낮은 현금보상금 및 노동시장 조기복귀 독려하는 병가 휴가자들에 대한 비인권적 대우라고 노조와 야당은 계속 비난을 해오고 있다.

## ■ 중도우파연합이 선거를 앞두고 제시한 봄 예산안

중도우파연합의 봄 예산안은 현 정권의 지금까지의 정책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고 앞으로 어떤 정책을 통해 유권자들의 표를 획득할 것인가 대한 표현이기도 하다. 간단히 볼 때 2010년 4월 15 일에 발표한 봄 예산안을 보면 지금까지의 정책방향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전체 예산액은 920억 크로나로 중도우파연합은 예산의 중요한 정책 목표로 일자리창출, 복지제도 개선 및 청소년에 대한 투자로 요약되고 있다. 또한 이런 방면에서 투자하면서도 정부의 재정 균형을 추구할 목적이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중도우파연합 정부의 정책을 보면 2011년부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금을 50억 크로나만큼 인상할 예정이며 최근 불경기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이 열악한 점을 감안해 2011년에 특별히 30억 크로나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추가지원금은 지방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보건, 노동 및 아동복지 및 교육 분

야의 복지 제도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0년과 2014년에 걸쳐 초등학교, 교사 및 견습공 제도를 위해 투자할 예정이다. 특히 초등학교의 수학 교육을 강화하고 고등학교와 성인학교에 견습공 교육에 투자하고 6학년부터 시작해 성적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sup>4)</sup>.

예산 분석가들은 중도우파의 봄 예산안을 복지 제도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칭찬하면서도 사회 기반시설, 특히 전국 각지와 스웨덴을 유럽과 연결하는 고속열차 노선의 건설 계획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고속열차 노선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장기적인 환경 목표와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중도우파연합 정부가 더욱 신경을 써야 할 부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 좌파연합이 제시한 대체 예산안

2010년 5월 3일에 좌파연합은 중도우파연합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대체 예산안을 발표하였다<sup>5)</sup>. 좌파연합의 재무상 후보인 토마스 외스트로스(Tomas Östros)는 중도우파 집권 기간 동안 실업률 특히 장기실업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점을 지적하면서 대체 예산안의 궁극적 목적은 추가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 예산안 중의 상당 부분은 지금까지 중도우파연합 정부가 실시한 정책을 되돌리는 정책도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좌파연합의 이념 실천을 위한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국방 예산의 감소는 스웨덴군 해외파견을 반대해 온 좌파당이 계속 주장해 온 바이고 자동차 유류세 증가 및 철로 및 공공버스 교통망 확대는 환경녹색당이 환경개선을 위해 계속 주장해 온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실업자, 병가자, 한부모가정, 연금 생활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해 온 정당으로 이들에 대한 사회제도 계획을 계속 주장해 오고 있다.

이런 사상을 배경으로 다음 <표 2>는 좌파연합이 2010년 9월에 정권 교체를 이룬 후 도입하려고 계획하는 주요 정책을 요약해서 보여준다.

4) Finansdepartementet, 2010-04-15. "2010 års ekonomiska vårproposition."

5) Expressen, 2010-05-03. "Här är oppositionens skuggbudget."

〈표 2〉 좌파연합이 2010년 9월 정권 교체를 이룬 후 도입 계획 중인 주요 정책

정책 방향	내 용	정부 재정에 미치는 효과
국 방	국방 예산 감축	2년간 20억 코로나 세금 절감
전 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가사에 관련한 서비스업에 대한 세금 지원 폐지</li> <li>- 청소년층 고용 증가를 위한 사업주세 반감 폐지</li> <li>- 법인 건물 구입시 인지세 인상</li> <li>- 그린하우스 가스 방출원에 대한 세금 인상, 예를 들어 자동차 유류세 리터당 0.49코로나 인상</li> <li>- 버스에 대한 자동차세 인하</li> <li>- 수력과 원자력에 대해 매년 20억 코로나의 세금 인상</li> <li>- 인공비료, 쓰레기 소각, 그린하우스 가스 방출에 대해 10억 코로나에 해당하는 세금 인상</li> <li>- 철로 확대 및 유럽 철도시스템과의 연계성 확대</li> <li>- 출퇴근 교통비에 대한 세금 감면액 인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억 코로나 세금 절감</li> <li>- 2011년과 2012년 각각 5억 코로나 만큼 세수 증대</li> </ul>
연금생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에 대한 세금 감소</li> <li>- 연금생활자와 현 임금생활자 간의 세금 격차 반감</li> <li>- 연금생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인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수 40억 코로나 증대</li> <li>- 세수 20억 코로나 증대</li> <li>- 정부지출 약 2.5억 코로나 지출</li> </ul>
저소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류와 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li> <li>-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부모휴가를 부부 사이에 동등하게 나누었을 경우 하루에 100코로나의 지원금 (jästaldhetsbonus) 추가 지원제 폐지</li> <li>- 부모휴가자, 병가휴가자, 실업자, 조기연금 수령자에 대한 세금 감소</li> </ul>	
고소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년에 새로운 형태의 부유세 도입</li> <li>- 임금소득과 사업자소득에 대한 세금감면 개혁, 월 임금이 4만 코로나까지는 기존 세금감면제도 유지, 월 임금이 4만 코로나에서 8만 코로나까지 세금감면 혜택 조정하고 임금이 8만 코로나 이상시에는 세금감면 혜택 완전 폐지</li> </ul>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이전소득 수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업보험제도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일 실업수당 최고 한도 2011년부터 930코로나로 인상</li> <li>- 일일 실업수당 950코로나로 인상, 100일 이후 하루에 일일 실업수당 150코로나만큼 감소</li> <li>- 실업보험료 세금감면 제도 재도입</li> </ul> </li> <li>• 병가휴가자에 대한 현금보상금 제도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가휴가자 현금보상금 전 병가기간에 걸쳐 병가 전 임금의 80% 유지 및 현금보상금 최고한도 인상, 2011년에는 월 28,200코로나 2012년에는 월 30,000코로나</li> <li>- 단기 부모휴가자 및 임신부에 대한 현금 보상금 최고액을 기본 소득의 8배 및 8.5배로 각각 인상</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출 32억 코로나 증가</li> <li>- 정부지출 총 43억 코로나 증가</li> <li>- 정부지출 총 43억 코로나 증가</li> <li>- 정부지출 3억 코로나 증가</li> </ul>
소기업자	2012년까지 2~3명 고용 소기업자에 대한 세금 5만 코로나 감소	- 정부지출 2011년에까지 20억 코로나 2012년에 60억 코로나 증가

〈표 2〉의 계속

정책방향	내 용	정부 재정에 미치는 효과
한부모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파트타임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100% 달성을 위한 지원</li> <li>- 한부모가정에 대한 아동보육수당 2011년 월 100크로나 2012년부터 150크로나 인상</li> <li>- 한부모가정에 대한 주택보조금 인상</li> </ul>	- 정부지출 약 8,25억 크로나 증가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업 진흥</li> <li>- 창업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출 5,000억 크로나 증가</li> <li>- 정부지출 1억 증가</li> </ul>

좌파연합의 예산은 중도우파 정책으로 고생을 겪어 온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 개선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각종 정책 실현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세금 인상이 예상되고 있어 예산 분석가들은 좌파 연합의 예산이 오히려 바로 그 계층들의 생활을 어렵게 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하고 있다.

## ■ 맺음말

중도우파연합 정부는 시장경제 및 자유주의 원칙을 고수하며 장기적으로 건전한 재정과 건전한 금융 제도를 유지하여 경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복지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

이런 중도우파연합 정부의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의 현재 정부 부채는 국민총생산 대비 30%로 유럽국가 평균 90%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이며 또 몇몇 국가들은 부채가 국민총생산 대비 100% 이상이라 어쩔 수 없이 긴축재정 정책을 취해 전체 국민이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반대로 현재 스웨덴의 경우 건전한 국가재정을 유지해 세금 인하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또한 각종 개혁 정책을 펼칠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건전한 국가재정 및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스웨덴 수출시장의 호전세는 현 우파정권에게 금번 선거에 있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또한 각종 여론 조사에서 보수당 출신 현 스웨덴의 수상 프레드릭 라인펠트(Fredrik Reinfeldt)에 대한 신임도가 야당 수상 후보 모나 살린(Mona Sahlin)에 대한 신임도가 높은 것도 금번 선거에 현 중도우파연합 정부의 집권 연장에 긍정

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sup>6)</sup>.

하지만 세계 불경기의 여파로 인해 높은 실업률(2010년 6월 현재 9.5%), 특히 장기실업자들의 수치 증가는 중도우파 정권에 대한 불만 요소로 작용해 중도우파 정부의 집권 연장에 부정 요소로 작용할 것임이 틀림없다. 덧붙여 중도우파 정권의 실업 제도와 병가휴가자에 대한 현금보상금 제도 및 노동시장 조기복귀 조치 또한 연금생활자들에 대한 세금 증가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더욱 궁지에 밀어붙인 제도라 비난을 받아 왔다. 그런 면에서 좌파연합이 제시한 대체 예산은 중도우파 정권의 '반노동자 정책'에 식상한 유권자들의 표를 끌어들이 가능성에 높은 것도 사실이다.

2010년 9월 스웨덴의 총선은 과거 어느 선거 때보다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특히 약 30만 명에 해당하는 유권자가 언제든지 전통적으로 지지하던 정당을 떠나 다른 정당에 투표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7)</sup>. 또한 최근 극우정당 스웨덴 민주당(Sverigedemokraterna:SD)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어 수십 년 만에 스웨덴의 정치 판도가 바뀔 가능성도 높다.

최근 실시된 각종 선거 여론조사에서 우파연합과 좌파연합에 대한 지지율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사실상 스웨덴 국민들이 스웨덴의 현 경제상황에 대해 특별한 불만이 없다는 측면에서 금년 선거 결과는 스웨덴 시민들이 사회 정책에서 어떤 이념에 더 동조하는지가 분명히 드러날 것임에 틀림없다. **KLI**

6) Svenska Dagbladet, 2010-07-17. "Högt förtroende på Reinfeldt".

7) Svenska Dagbladet, 2010-06-05. "S-väljare redo fly partiet".